

# LG,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탁



12일 이방수 ㈜LG CSR팀 부사장(왼쪽)이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화문광장 '사랑의온도탑' 3도 상승

LG가 120억원을 이웃에 나눈다. LG는 12일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같은 규모다. 성금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기초생계 지원, 주거 및 의료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LG가 성금을 기탁하면서 서울 광화문광장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3도 가량 상승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액 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장치다.

연말 모금 목표액인 4105억원을 100도로, 41억5000만원을 모금할 때마다 1도씩 오른다. 그 밖에도 LG그룹은 연말을 맞아 계열사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근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김치를 담가 선물하는 등이다. LG 이방수 부사장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LG가 가진 역량을 활용한 공익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알뜰폰 10년은 갈까요?”



기자 수첩 김나인 (산업부)

“그래도 10년은 가야죠.” 최근 만난 알뜰폰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꿈의 속도’로 불리는 5G 시대.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혼자만 갈 길을 잃은 알뜰폰의 생존고심이 깊다.

당장 이동통신사가 저가요금제를 내자 알뜰폰 이탈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알뜰폰보다는 서비스가 많은 이동통신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이동통신 3사로 가입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아이폰XS’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번호이동 시장 규모가 커져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은 늘어났지만 알뜰폰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망도 어둡다. 5G가 상용화되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망

임대를 받아도 5G 망 도매대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사는 5G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알뜰폰 업계는 당장 생존도 어렵다. 대기업 계열의 회사가 아니면 사업 규모도 작아 역량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지라도 쇠신해보려고 새 이름을 찾으려고 공모전을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알뜰폰 이름이 바뀔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용자가 바뀐 이름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알뜰폰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고, 이미 시장에 스며들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알뜰폰’이란 이름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다. 결국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과 5G 시대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다. 알뜰폰에 대해 이용자들이 ‘싸구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정체된 서비스 탓이 크다. 알뜰폰을 단지 저렴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서비스가 있어 고객이 저절로 찾도록 틈새시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그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5G 시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silni@metroseoul.co.kr

## 롯데 ‘마음온도 37도 캠페인’ 구세군에 5억 기부

롯데가 한국구세군과 함께 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에 나선다. 롯데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야외광장에서 한국구세군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국내 어린이복지시설 450여 곳과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 230여 곳의 난방비 및 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은 롯데와 한국구세군이 2016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말 사회공헌캠페인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 기부자와 수혜 아동 모두 마음온도가 37도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롯데는 매년 기부금 규모를 늘려 올해는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롯데는 기부금 전달 외에도 일반 고객들이 손쉽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한달 동안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설치된 캠페인 부스와 롯데사회공헌 홈페이지 등 롯데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 주말부터



12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롯데장학재단 허성관 이사장(왼쪽부터)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롯데지주 황각규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오늘의 운세 12월 13일 (음 11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아니겠는가. 60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는데. 72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84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되는 것.
- 소** 49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 61년생 희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73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85년생 내가 믿어야 상대도 설득시킬 수 있음을 명심.
- 호랑이**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74년생 결혼은 돌이 했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가는 여행. 86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탈출.
- 토끼** 51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63년생 계으로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는 걸 명심. 75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87년생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 오늘은 행복.
- 말** 52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64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한 노력을 하자. 7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88년생 푸른 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법이다.
- 원숭이** 53년생 상대의 실수가 내게는 기회로 다가온다. 65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7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89년생 두드러진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 말** 54년생 모래 위에 쓴 약속은 바람 불면 지워져 버린다. 66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하라. 78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에게도 좋은 일. 90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
- 양** 55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7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다. 7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9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 원숭이** 56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배우자와의 대화도 조심. 68년생 옹피, 소피와의 거리가 순조롭게 진행. 80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니 적당히. 92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근심도 같이 온다.
- 닭** 57년생 베풀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1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3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 개** 5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회일비하지 마라. 70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자. 82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94년생 과대포장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
- 돼지** 5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71년생 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83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5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1					
	5				2			
	1		3		8			
		6		7				
2			8					4
	1		4		3			
	3		2		6			
9	4		3		6		7	2
	2	1		4	3			

1	9						7	2
			2		6			
		4		5		3		
		3				8		
6	7					1		3
		1		6		2		
	2	5				6	8	

스도쿠 정답

5	8	1	6	2	9	7	4	3
2	1	9	5	8	6	3	7	4
6	7	4	3	5	2	8	1	9
9	5	2	7	6	1	8	3	4
1	3	8	9	4	5	6	2	7
8	6	3	1	9	7	5	4	2
4	8	5	2	1	9	7	3	6
1	9	2	6	7	5	8	4	3
7	4	6	1	9	8	2	3	5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공자 말씀 친친이친

공자가 한 말 중에 친친이친(親親而親)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잘하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못 발전하면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어 병폐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친이친은 세간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람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닌 인지상정의 견지에서 잘하라는 것이다. 또한 논어의 자로편(子路篇)에 보면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도 보인다. 공자가 초나라의 섭공(葉公)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받자 단언하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말이 바로 ‘근자열 원자래’인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히 잘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근거리의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질투심도 더한 것이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가까울수록 더욱 원하는 것이 많고 뒷말들도 많이 한다.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원망 쌓일 개연성이 덜한 것이다. 공자의 친친이친이라는 말과 근자열 원자래는 그 의미가 바로 상통하듯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치민(治民)이나 보통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을 고용한 오너의 입장에서라도 단지 내가 너에게 돈을 주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해! 라는 고압적 의미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배려와 존중이 밑바탕에 깔린 후의를 말하는 것이라. 진정 사람들 그 관계를 아낌없이 고마운 인연으로 성의가 있다면 자연스레 주변에 사람이 따르고 모이게 되는 것이라. 물질을 잘 베푼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며 가까운 사이라 해서 편한 관계라 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김상회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1721-9851, 9826 /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04호